

한글본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여성

文麗華*

<차례>

1. 들어가며
2. 한글본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여성상
 - 1) 화려한 차림의 한녀와 실용적 복색의 호녀
 - 2) 전족을 한 한녀와 노동을 하지 않는 호녀
 - 3) 규범을 지키는 한녀와 내외규범에서 자유로운 호녀
3. 여성 규범과 소중화 의식의 강조와 변화
4. 나가며

<국문초록>

연행록은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서 체험한 문물제도, 일상문화 등에 대한 보고서이고 중국과 한국의 정치와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연행록은 한문본과 한글본으로 나뉘는데 다수의 연구가 한문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고는 한글본 14종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조천일승(朝天日乘)>부터 <연행일기>, <을병연행록>, <무오연행록>, <북연기행>, <연행록>을 중심으로 조선 사신이 포착한 중국 여성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여성의 변화 양상과 저자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중화사상과 가부장제에 익숙한 저자들이 중국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명나라와 청나라 조정에 대한 조선 사대부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여성의 형상은 저자들이 확인한 구체적인 모습과 기존의 관념이 함께 작동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저자들은 중국 여성의 복식과 단장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중국 여성을 ‘한녀(漢女)’와 ‘호녀(胡女)’로 구분하고 대체로 전자를 긍정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것은 조선이 한족 중심의 명나라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에 대한 자부감이나 ‘소중화(小中華)’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 北京大學, 副教授

읽힌다. 이러한 인식은 후기로 오면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저자들이 주목한 한녀와 호녀의 모습은 조선 여성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며, 여성의 덕목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한글본의 주 독자층이 조선 여성이고 그들은 한글 연행록을 통해 중국에 대한 지식을 쌓고 중국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글본 연행록, 중국 여성, 한녀, 호녀, 여성규범

1. 들어가며

연행록은 명청 시기 조선조 사신들이 중국을 다녀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비를 기록한 산문문학으로, 일종의 여행기이다. 연행록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외교관계를 보여 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연행록을 통해 조선의 백성들은 중국의 자연풍경과 문물제도, 문화와 일상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중국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연행록에는 중국 체험과 경물 이미지는 물론 그것을 기록하는 연행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행록은 표기수단에 따라 한문본과 한글본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문본은 대략 600종이고 한글본은 14종이다. 그동안 연행록 연구는 대부분 한문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¹⁾ 하지만 한글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글본 연행록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김창업의 <연행일기>,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박지원의 <연암열하일기>이다.²⁾ 현재까지 한글본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1) 한문본 연행록 관련 연구는 200여 편이 된다. 유준동, 『한글연행록의 수집 현황과 활용방안』, 『열상고전연구』 50, 2016, 363~367쪽 참조.

2) 최근 출간된 『낭송 18세기 연행록』에서는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 홍대용의 <담현연기> 등 18세기의 대표적 연행록과 이기지(李器之, 1690~1722)의 <일암연기(一

진행되어 왔다. 먼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한글연행록의 종합적 연구” 관련 성과가 있다. 여기에는 고전문학, 국어학, 구비문학, 서지학, 자료학 등 한글연행록의 전반적인 연구가 포함된다.³⁾ 그 외에 한글본과 한문본의 비교연구,⁴⁾ 개별 작품과 여러 한글본에 대한 연구,⁵⁾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이미지나 여성 형상에 대한 연구⁶⁾ 등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

庵燕記)), 강호보(姜浩溥, 1690~?)의 <상봉록(桑蓬錄)>, 서호수(徐浩修, 1736~1799)의 <연행기(燕行紀)>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행록 저자들의 모험심과 문명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분석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3의 비밀언어, 한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현미(엮은이), 『낭송 18세기 연행록』, 북드라망, 2019, 1~239쪽).

- 3) 유춘동(2016), 위의 논문, 361~377쪽; 한영균 『한글 연행록류의 서지와 산출 시기』, 『열상고전연구』 49, 2016, 7~94쪽; 김정경, 『18세기 한글본 연행록 연구-청녀묘와 천주당 견문기록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9, 2016, 11~42쪽; 조미희, 『동경대 소장 한글본 <열하기>의 번역 양상』, 『열상고전연구』 49, 2016, 95~130쪽; 신효련, 『노가재 <연행일기>의 국문본 이본 고찰』, 『열상고전연구』 49, 2016, 43~65쪽 등이 있다.
- 4) 김태준, 『담헌연기와 을병연행록의 비교연구-특히 한시 번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11, 1985, 38~68쪽; 조양원, 『김직연의 연행기록 『燕槎日錄』·『연행록』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35(1), 2012, 243~277쪽; 임명걸, 『을병연행록 연구-『연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22, 2020, 411~423쪽 등이 있다.
- 5) 김태준, 『“열하일기” 한글본 출현의 뜻』, 『민족문화사연구』 19, 2001, 282~329쪽; 장경남, 『국문본 연행록 『북연기행』 연구』, 『우리문화연구』 29, 2010, 99~132쪽; 장경남, 『서유문의 무오연행록 연구』, 『국어국문학』 130, 2002, 157~189쪽; 고운기, 『한글본 燕行錄의 제작 양상-새 발굴 자료 桑蓬錄과 乘槎錄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0, 5~28쪽; 김상조,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연구』, 『영주어문』 10, 2005, 29~50쪽; 楊蕾蕾, 『“老稼齋燕行日記”가 그린 청나라: 청나라의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冠嶽語文研究』 35, 2010, 179~200쪽; 조양원, 『동경대 소장 한글본 熱河記 연구』, 『민족문화』 44, 2014, 79~120쪽; 전혜숙, 『서유문의 무오연행록에 나타난 북식문화』, 『한북문화』 9(2), 2006, 23~39쪽; 이지영, 『“燕槎日錄” 한글본에 대한 고찰』, 『국어사연구』 15, 2012, 269~294쪽; 최강현, 『미발표 사행기록 『조천일승(朝天日乘)』 소고』, 『새국어교육』 29-1, 1979, 308~325쪽; 조규익, 『조선 후기 국문 사행록 연구-무오연행록의 내용과 의미』, 『崇實語文』 18, 2002, 269~299쪽; 김동욱, 『“무오연행록”해제』, 『민족문화』 2, 1976, 156~160쪽; 조규익, 『조선조 국문 사행록의 통시적 연구』, 『어문연구』 31, 2003, 83~104쪽 등이 있다.
- 6)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에 나타난 중국의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한글본 연행록에 대한 연구가 적은 이유는 발굴한 자료의 수가 적어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⁷⁾ 중국 학계에서도 연행록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⁸⁾ 한글본만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는 2000년 무렵부터 한글본 연행록에 대한 자료 발굴을 중시하였으며 2014년 정부(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한글본의 수집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글본은 총 14종이다. 한글 필사기와 제작시기를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⁹⁾

번호	제목 ¹⁾	작자	사행시기	한글 필사 및 제작시기 추정 ¹⁾	소장처 ²⁾	한문본
1	朝天日乘 ¹³⁾	趙澗 (1568~1631)	1624	162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	도턴록 ¹⁴⁾	미상	1625	1625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3	연행일기 ¹⁵⁾	金昌業 (1658~1721)	1712~1713	17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순천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서울대 가람문고 소장	老稼齋 燕行錄
4	상봉록	姜浩溥 (1690~?)	1727	1741	연세대학교국학자료실 소장 (대동문화연구원(2008) 한글본 원문 영인)	桑蓬錄

2005, 181~205쪽;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해안, 2007, 1~307쪽; 채송화, 『『을병연행록』과 여성 독자』, 『민족문화사연구』 55, 2014, 427~461쪽; 申先玉, 『연행록 속에 나타난 중국 여성이 사회적 역할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44, 2015, 185~196쪽; 金敏鎬, 『燕行錄에 보이는 中國 女性 形象』, 『中國語文論叢』 54, 2012, 299~330쪽; 김철, 『燕行錄 중의 孟姜女 전설 기록 양상 小考』, 『민족문화연구』 63, 2014, 157~209쪽 등이 있다.

7) 유춘동(2016), 앞의 논문, 36쪽 참조.

8) 중국에서의 연행록 연구에 대해서는 김병민, 『‘연행록’ 연구사에 대한 통시적 고찰-중국에서의 ‘연행록’ 연구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29, 2014, 387~422쪽에서 비교적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9) 한영균(2016), 위의 논문, 67~94쪽과 유춘동(2016), 위의 논문, 368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표를 정리하였다.

5	서원록	李義鳳 (1733~1801)	1760~1761	1765/1769	연세대학교국학자료실 소장(대동 문화연구원(2008)한글본 영인)	北轅錄
6	을병연행록	洪大容 (1731~1783)	1765	1766(1829~ 1831) ¹⁶⁾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소장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湛軒 燕記
7	기축연행록 권오	洪樂信 (1739~1796)	1770	1770	미국클레이몬트-맥켄나 대학 맥 커키 문고 소장	
8	승사록	黃仁點 (1732~1802)	1790	1790~1791	연세대학교국학자료실 소장(대동문 화연구원(2008) 한글본 원문 영인)	
9	경술열하기	작자미상	1790	1790~1791	미상(김태준 소개) ¹⁷⁾	
10	휴당연행록	李繼祐 (1754~1833)	1793	1793/ 19세기 초?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11	무오연행록	徐有聞 (1762~1822)	1798~1799	1798~1799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戊午 燕錄 ¹⁸⁾
12	연암열하일기	박지원 (1737~1805)	1780	1799?/1859?	동경대학교 오구라 문고 소장(대 동문화연구원(2008) 원문 영인)	熱河 日記
13	복연기행	李魯春 (1752~1816)	1783	1813/1816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 장	
14	연행록	金直淵 (1811-1884)	1858	1858	의왕시 향토사료관 소장	燕槎 日錄

- 10) 작품명이 한영균(2016), 앞의 논문, 72쪽과 유춘동(2016), 앞의 논문, 368쪽에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한영균은 한글 고어 표기로 적었고, 유춘동은 현대어로 적었으며 일부 작품명은 불일치했다. 본고에서는 한영균의 작품명 표기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 11) 연행록의 산출 시기 추정 상황도 한영균(2016), 위의 논문, 72쪽과 유춘동(2016), 위의 논문, 368쪽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영균은 사행시기를 적고 산출시기를 추정했고 유춘동은 필사 및 제작시지만 정리하였다. 일부 산출 시기는 불일치했다. 본고에서는 한영균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 12) 소장처는 한영균(2016), 위의 논문, 72~81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 13) 《朝天日乘》에 관한 내용은 최강현(1979), 위의 논문, 308~325쪽 참조. 《朝天日乘》은 현전하는 최초의 한글 연행록이다.
- 14) 《도턴록》의 별명은 《갑자수로조친록》이고, 이후 연행록이 모두 육로로 북경을 다녀왔는데 《朝天日乘》과 《도턴록》은 해로로 다녀온 기록이다.
- 15) 《연행일기》은 이본으로 한문본 4종, 한글본 2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박지선, 『老稼齋燕行日記』의 서지적 고찰, 『어문연구』 23-4, 1995, 197쪽.) 한영균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한글본 1종을 소개하였다(한영균, 『순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소장 자료의 국어사적 가치』, 『열상고전연구』 41, 2014, 191~215쪽 참조.)
- 16) 소재영 외, 『해제-홍대용의 『을병연행록』에 대하여』,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위의 한글본 14종 중에 한글본과 한문본이 함께 남아 있는 연행록은 7종으로, 김창업(金昌業)의 <연행일기>, 강호보(姜浩溥)의 <상봉록>, 이의봉(李義鳳)의 <서원록>, 홍대용(洪大容)의 <을병연행록>, 박지원(朴趾源)의 <연암열하일기>, 서유문(徐有聞)의 <무오연행록>, 김직연(金直淵)의 <연행록>이다. 그리고 한글본만 남아 있는 연행록은 조즙(趙澂)의 <조천일승(朝天日乘)>, 홍낙신(洪樂信)의 <기축연행록 권오>, 황인점(黃仁點)의 <승사록>, 이계호(李繼祐)의 <휴당연행록>, 이노춘(李魯春)의 <북연기행>, 그리고 작자미상의 <도턴록>과 <경술열하기>가 있다.¹⁹⁾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글본 연행록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200여 년간 꾸준히 기록되었다. 한문본 연행록이 남성 사대부를 예상 독자로 한 것이라면, 한글본 연행록은 조선의 여성을 예상 독자로 한 것이다. 조선 사신들은 연행 과정에서 경험한 중국의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문물제도, 자연풍경, 인물과 풍습 등을 한글로 번역하여 여성 독자가 읽을 수 있게 했다. 조선 여성은 한글본 연행록을 통해 외국의 문물을 접하고 조선 외의 세상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었다.²⁰⁾ 특히 중국 여성의 구체적 모습은 동시기 조선 여성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었을 것이고 동시에 남성 작가 입장에서 자국 여성에게 전하고 싶은 이념적 메시지

1997, 815~817쪽에서는 필사를 마친 해가 담헌이 연경에 다녀온 지 64년만인 1830년으로 보고 있으나, 한영균은 원본이 아닌 후대 필사본의 연대로 봐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담헌의 생몰연대(1731~1783)로 보아 필사 저본의 완성은 이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영균(2016), 앞의 논문, 77쪽 재인용.)

17) 김태준, 『『열하일기』 한글본 출현의 뜻』, 『민족문화사연구』 19, 2001, 282~329쪽에서 한문본 『열하일기』가 한글 번역본과 함께 소개되었다. (한영균(2016), 위의 논문, 78쪽.)

18) 김동욱(1976), 앞의 논문, 156~160쪽에 의하면 한문본은 한글본을 축역한 것이라 한다.

19) 한영균(2016), 위의 논문, 73~81쪽 참조.

20) 조선조 여성들이 한글 자료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섭렵했던 정황에 대해서는 조혜란, 『조선시대 한글과 여성 교양』, 『달밤의 약속, 『완월회맹연』 읽기』, 책과함께, 2019, 13~28쪽 참조.

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 소재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연행록에는 사회 문물 외에 조선 사신들이 길거리나 민간 행사, 중국 사람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중국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주지하듯 중국 여성에 대한 기록은 문물제도와 자연풍경에 대한 기록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제도와 풍경은 보고 들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하지만, 중국 여성에 대한 기록은 작가의 '규범의식'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는 여성이 지켜야 할 '부덕(婦德)'을 강조하는 사회였기에, 남성 사대부가 여성에게 읽히기 위해 한글로 기록을 남길 때는 대부분 '여성의 도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 김만중이 한글로 쓴 소설 <사씨남정기>, 송시열이 한글로 쓴 <계녀서>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중국 여성의 모습도 결국은 조선 여성 독자에게 '올바른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는 규범의식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글본 연행록에 기록된 중국 여성의 모습을 통해 연행록 작가가 중국 여성에 대해 가졌던 태도와 자국 여성 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규범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행록 작가가 중국 여성의 모습 중 어느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중국 여성의 모습에서 어떠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또 어떠한 부분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한글본 연행록에 기록된 중국 여성에 대한 '평가가 조선의 여성 독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글본 연행록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조즙의 <조천일승(朝天日乘)>(1624)과 비교적 널리 알려진 김창업의 <연행일기>(1712), 홍대용의 <을병연행록>(1766), 이노춘의 <북연기행>(1783), 서유문의 <무오연행록>(1798), 마지막 한글 연행록인 김직연의 <연행록>(1858)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한글본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여성상

조선인이 생각하는 중국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역대 문헌과 역사기록, 문학작품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문헌에 나타난 중국 고대 여성들은 순종적이고 절개를 지키며, 내외를 하는 전통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²¹⁾ 그러나 실제 조선의 사신들이 연행 중에 만난 중국 여성들은 이전 시기 문헌에 기록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글본 연행록 저자들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중국 여성의 복식과 단장, 행동거지와 일상생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중국 여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 연행록 저자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화려한 차림의 한녀와 실용적 복색의 호녀

중국 연행은 보통 수개월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양과 연경을 오가는 노정도 길고 연경에서 머무는 기간도 긴 것이다. 그 사이 연행 사신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길거리 여성, 하층 호녀, 걸인, 사대부 여성 등이 포함된다. 사신들은 주로 그들의 옷차림과 단장, 머리 장식 등에 관심을 가졌다.

한족 여인은 다 분을 바르는데 호녀는 바르지 않는다. 전에 듣기로는 한족 여인은 남편이 있으면 아무리 늙어도 모두 화장을 하고 꽃을 꽂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보니 다 그렇지 않았다. 관외(關外)의 여인 중에는 미인이 많았다. 남녀의 복장은 사치한 이나 검소한 이를 막론하고 모두 검은 빛을 숭상하는데, 한족 여인은 그렇지 않아 푸르고 붉은 바지를 입은 자가 많았다. 부자로 사치한

21) 김민호는 중국의 문헌에 보이는 중국 여성 형상들이 순종적이고 절개를 지키며 피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金敏鎬(2012), 앞의 논문, 299~305쪽.)

자 외에는 다 굵은 베를 쓰며, 북경도 마찬가지였다. 여자의 옷은 매우 가난한 자 외에는 모두 비단을 입으며, 시골도 마찬가지였다.²²⁾

인용문은 <연행일기>(1712)에서 김창업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중국 여성들의 모습이다. <연행일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여성의 복식과 단장을 그릴 때, 한녀와 호녀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한녀는 한족 여성을 가리키고 호녀는 만주족 여성을 가리킨다.

김창업은 중국 여인 중 한녀는 화장을 하는데 호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며, 남녀가 대체로 검은빛 옷을 숭상하는데 한녀는 푸르고 붉은 바지를 입은 자가 많다고 했다. 화장을 하고 붉고 푸른 바지를 입는다는 점은 한족 여성들이 비교적 화려한 복색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밖에 여자 옷은 가난한 자 외에 시골이나 북경이나 비단을 많이 입는다는 점은 북경과 시골 사이에 경제적 차이가 크지 않음을 드러낸다. 당시에는 신발도 비단을 사용해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중국 남부 지방에서 비단이 많이 생산되었고 유통과 소비도 잘 되고 있던 정황을 보여준다.²³⁾ 작가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비단을 많이 입는다는 사실로 인해 당시 청나라의 의복문화 수준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김창업이 중국 여성의 화려한 복색에 주목했다면 서유문은 중국 여성의 실용적 옷차림을 기록했다. <무오연행록>(1798)에 그려진 중국 여성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여자는 위에 또한 두루마기를 입었으니 얼핏 보면 사나이와 다름없고, 치마를 혹 입은 이 있으니 그 제도가 앞은 세 폭이요, 뒤는 네 폭이로되 책문에서 황성까지 여럿을 보지 못하니, 이는 마을 계집이 일을 골몰히 하기로 입는 일이 없는가 싶으며, 혹 동저고리(胴赤古里)에 당바지 입은 계집이 길가에 섰으니

22)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98) 연행록선집 IV』,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6, 33쪽.

23) 楊蕾蕾(2010), 앞의 논문, 183쪽.

더럽고 미워 괴이하게 보이며, 머리털은 깎은 일이 없고 사나이 모양으로 제껴 빗어 꼭뒤에 뭉쳐 서너 번 틀어 상투 모양을 만들고 비녀를 둘로 꽂았으며, 귀에 귀걸이를 다 달았으며, 혹 어린 사나이라도 귀걸이를 달았으니 괴이한지라. 계집이 발을 동인 듯하되, 책문에서는 하나도 보지 못하니 다 짐짓 오랑캐(胡)인가 싶더라. 사나이는 어른과 아이를 분별할 길이 없으며, 계집 중에 처녀는 가르마를 땀으며, 출가하면 모두 제껴 빗는다 하되, 혹 여남은 살 먹은 것도 제껴 빗은 머리가 있으니 이는 분명치 아니하더라.²⁴⁾

위 기록에서 서유문은 두루마기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얼핏 보면 사나이와 같고 치마를 입은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여성이 일을 “골몰히” 하기 때문에 치마 입을 일이 없어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여성이 일을 골몰하게 한다는 것은 노동하는 여성을 나타내며, 사나이와 같은 옷차림은 노동에 편리한 바지 차림을 의미한다. 즉 서유문이 흥미롭게 생각한 중국 여성의 차림새는 실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짐짓 오랑캐인가 싶더라”라는 말에서 보듯, 실용적 모습의 여성은 만주족의 호녀일 가능성이 크다. 만주족은 북방에서 생활하며 말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추위를 막는 좁은 소매의 옷이나 노동하기 편하도록 여민 옷을 주로 입었기 때문이다. 서유문은 당바지의 만주족 여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일에 골몰하는 실용성’에 주목했다가 나중에는 “더럽고”, “밧고”, “괴이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태도의 변화는 만주족에 대한 실제적 인상과 관념적 판단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 까닭일 것이다.

김창업과 서유문은 한녀와 호녀를 구분하고 호녀의 복식에 차별적 시선을 드러내었지만 연행록 저자들 가운데서 호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을병연행록>(1766)에서 홍대용은 개방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만주족 여성을 바라보았다. 을유년 12월 7일 일기

24) <무오연행록> 제1권, 무오년, 11월 16일.

에는 십리포(十里舖) 숙소에서 홍대용이 호인 주인 며느리의 수식(首飾)을 관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계(髻) 제양(制樣)은 머리털을 사내의 상투 모양으로 모아서 접은 형식으로 모두 매었는데, 사나이 상투에서 뒤를 한 주먹 놓일 만큼 물려서 매고, 앞을 한번을 꺾어 높고 둥글게 굽혔으니 높이가 반 뺨 남짓 되었다. 위에 간구(巾幘)를 붙일 사이를 비우고 털을 넓게 다듬어 치포건(縹布巾) 모양과 방불(彷彿)하였다. 머리 가닥은 굽혀 온 굽이를 한데 대고, 남은 머리털을 꼬아 그 밖을 차차 두르니 방석 틀듯 하고, 작은 비녀를 여러 개를 꽂아 풀어지지 않게 하고, 그 위로 비단 조화 여럿을 꽂았다. 처녀의 머리 제양은 다른 것은 같고, 앞을 한치의 가르마를 갈라서 두 가닥을 좌우로 올려 모은 털을 한데 매었다. 한녀(漢女)는 그 위에 여러 가지 관을 각각 쓰고 흑 복건 같은 것도 썼는데, 호녀(胡女)는 쓰지 않는가 싶었다.²⁵⁾

위 기록에서 홍대용은 호인 며느리의 머리 꾸밈 모양을 장식하는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특히 ‘사내의 상투 모양으로 만든 여성의 머리 방식에 주목했다. ‘사내다운’ 차림과 장식은 조선식 여성의 모습과는 다른 특징이며, 특히 활동적이고 실제 생활에 편리하도록 디자인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녀는 그 위에 여러 가지 관과 복건을 썼고, 호녀는 쓰지 않았다’는 부분은 한녀가 호녀에 비해 조금 더 화려한 장식을 추구했던 정황을 나타낸다. 이 장면 뒤에는 머리 장식을 보여 준 여자와 긴 대화를 나눈다. 그녀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과도한 혼수 때문에 딸을 ‘창다오(強盜, 강도)’라고 부르고, 친척이 아닌 경우에 동성(同姓) 혼인이 허용된다고 한다. 이 대화 장면은 홍대용이 중국에 사는 호인 여성에 대해 깊은 관심과 편견 없는 관찰의 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5)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7일.

19세기 김직연의 <연형록>(1858)에도 한녀와 구분되는 호녀의 복식 묘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전의 기록과 좀 다른 객관적인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아래는 <연형록>의 호녀 복식에 대한 기록이다.

다음은 호녀(胡女)의 복식을 묘사한 대목이다. 부인의 옷도 모두 남자 옷과 같은데 단지 옷소매가 조금 널찍하고 소매깃에 자수로 새나 화초 문양을 그려 넣은 것이 반 척 남짓 되었다. 머리는 깎지 않고 쪽지어 높이 올렸으며, 머리꾸미개는 일정하지 않으나 그 법식은 비녀와 비슷하였다. 어른일수록 머리꾸미개를 많이 질러 멀리서 보면 매미 날개 같아 보였다. 머리통 뒤에 꽃기도 하고 횡으로 종으로 꽃은 것이 사람마다 달랐다. 종으로 만든 꽃을 가득 꽂지 않은 이는 없었으니, 비록 늙어서 곱사등이 되고 머리는 파뿌리처럼 센 이들도 반드시 분을 바르고 꽃을 꽂았다. 발에는 수놓은 가죽신을 신었으며,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일지라도 반드시 귀에 귀고리를 매달아 구슬을 켤 것처럼 보였다. 우리 나라의 선천(宣川)이서 지방의 부녀자들은 모두 귀걸이를 하고 저고리를 간혹 청색을 물들이는데 燕지방과 가까워 그곳 풍습에 물들어 그런 줄을 알겠다.²⁶⁾

위의 기록에서는 호녀의 복식과 머리 모양을 설명하고 늙은이도 분을 바르고 머리에 꽃을 꽂고, 꽃신을 신었다고 하였다. 1712년 김창업의 <연형일기>에서 “한족 여인은 다 분을 바르는데 호녀는 바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0년 사이에 호녀의 복식 풍속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녀가 수놓은 가죽신을 신고 구슬을 켤 것 같은 귀고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 예쁘게 보였다고 하였으니, 이전에 비해 치장이 화려하게 변한 듯 보인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청나라 후기에 만주족의 풍속이 강화된 것이고 둘째는 만주족 여성들의 의복 문화가 한족에 영향을 받아 변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6) 민족문화추진회(1976), 앞의 책, 32쪽.

김직연은 19세기 청나라 여성들의 옷차림과 단장에 대해 옷의 색깔, 머리 모양, 머리에 꽃을 꽂는 것과 귀걸이, 비녀, 신발 등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머리에 꽃을 꽂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꽃을 꽂는 것은 만주족 여성들의 풍속으로, 청나라 여성들은 꽃을 머리 가운데 꽂거나 머리 양단에 꽂기도 하였다. 만주족의 샤머니즘에서 꽃은 악마를 쫓는다 여겼기 때문에 여성들은 꽃을 꽂기 좋아했던 것이다. 만주족 여성들이 귀걸이를 하는 풍속도 샤머니즘과 관련되는데, 그들은 귀걸이에 귀신을 쫓고 액운을 막는 기능이 있다 하여 중요한 장신구로 여겼다.²⁷⁾ 그러나 조선인 사신은 이전 연행록을 통해 한족 여인이 화려한 치장을 하고 만주족 여인은 '사내 같은' 차림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저자가 호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만주족 여성이 한족 여성의 복색 양식을 수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2) 전족을 한 한녀와 노동을 하지 않는 호녀

한녀와 호녀의 비교에서는 화려함과 실용성의 차이를 부각하며 서술한 반면,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치장에 신경 쓰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모습으로 포착된다. 많은 연행록에서 중국 여성들은 비깔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단장에만 신경 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남편한테 모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여성들의 화려한 모습과 남자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대조했다. 김창업의 <연행일기>(1712)에서 여자는 비단옷을 입고 분을 바르고 꽃을 머리에 꽂는데, 그 남편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얼굴마저 누추하여 얼른 보면 종으로 보인다

27) 徐東日, 『朝鮮朝使臣眼中的中國形象-以『燕行錄』『朝天錄』爲中心』, 中華書局, 2017, 133쪽.

고 했다.²⁸⁾

모든 힘든 일은 다 남자가 담당한다. 수레를 몰고 밭을 갈고 나무를 지는 일 외에도 물의 운반, 쌀 찧기, 씨 뿌리기에서부터 심지어 베를 짜고 바느질하는 일까지 모두 남자가 한다. 여자는 드물게 문밖에 나오며 하는 일은 신바닥을 꿰매는 일에 불과할 뿐이다. 시골 여자는 간혹 곡식을 까불거나 밥 짓는 일 등을 직접 하기도 하는데, 시장이나 가게에 오기는 여자들은 결코 볼 수가 없다.²⁹⁾

위의 기록에 따르면 남성은 수레 몰기, 밭 갈기, 나무하기, 물 운반, 쌀 찧기는 물론 씨 뿌리, 베짜기, 바느질까지 힘들고 굶은일을 다 하지만 여성은 신바닥을 꿰매는 일만 한다고 한다. 시골 여자들은 집에서 곡식을 까불거나 밥을 하고 시장이나 가게에서는 여성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형상은 18세기 말에도 이어져 서유문의 <무오연흥록>(1798)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계집은 담 위 문안에서 들어서 보니, 얼굴에 분을 바르고 머리에 다 꽃을 꽂았으니 고운 얼굴을 가진 자가 많아 우리나라의 시골 계집 모양 같은 자가 적으니, 대개 북방 풍속은 남자는 농사와 장사에 힘을 다하고, 물을 길으며 불을 때는 일도 또한 스스로 하여 떨어진 옷과 때 묻은 얼굴이 사람의 모양 같지 아니하고, 여자는 다 온돌 위에 편히 앉아 얼굴만 가꾸고 일삼는 것이 오직 지아비 바지와 버선이요, 이 밖은 다 남의 손을 빌리니 남을 위하여 바느질하는 자 또한 남자의 일로 생계를 삼는 자라.³⁰⁾

여기에서 중국 여성들은 고운 얼굴을 가진 자가 많다고 하였다. 조선의

28) 민족문화추진회(1976), 앞의 책, 33쪽.

29) 민족문화추진회(1976), 위의 책, 33쪽.

30) <무오연흥록> 제2권, 12월 13일.

시골 계집 모양 같은 자가 적다는 말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고운 외양의 여성과 대조적으로 남자는 “떨어진 옷과 때 묻은 얼굴이 사람의 모양 같지” 않은 누추한 모습이다. 이것은 북방 남성의 보편적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북방은 조선에 대비한 중국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연행록 저자들의 연행 과정에서 거치는 북방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북방 풍속에서는 남자가 농사나 장사 등 바깥일뿐만 아니라 물을 길고 불을 때는 집안일도 도맡아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여성들은 얼굴 단장만 하고, 하는 일은 오직 바느질뿐이며 다른 일은 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록된다. 서유문이 남녀의 관계에서는 중국 여성의 치장을 게으름과 결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족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전족과 관련된다.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본 연행록인 <朝天日乘>(1624)에서는 “大明 高黃帝 계집의 발을 작게 하여 오랑개가 와도 달리지 못하게 하니 걸음걸이를 못하게 한 일이라”라고 했다. 이것은 중국 여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발을 동여매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전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읽힌다.³¹⁾ 동시에 한글본 연행록 저자들은 중국 여성의 전족을 신기하게 여기고 그것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연행일기>(1712)에 나오는 전족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또 호녀 3명과 한녀(漢女) 1명이 동쪽 문에서 나오더니 북쪽문으로 들어가 버린다. 한녀(漢女)는 발이 뽀족하고 작다. 이른바 3치(三寸)밖에 안 되는 금련(金蓮)과 그림 속에서 보았던 궁혜(弓鞋 부녀의 전족에 쓰는 가죽신)를 비로소 여기서 처음 실물의 형태를 보고 알았다.³²⁾

김창업은 처음 전족을 본 일을 기록하면서 한녀는 전각을 하고, “호녀

31) 崔康賢著, 『韓國古典隨筆講讀』, 高麗苑, 1987(제4판), 215쪽.

32) 민족문화추진회(1976), 앞의 책, 404~405쪽.

(胡女)는 전각(纏脚)하지 않으나 간혹 화(靴)를 신을 수는 있다.”³³⁾고 하였다. 이 서술에서 호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호녀가 한녀보다 자유스럽고 개방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다음은 <무오연행록>(1798)에 나타난 전족에 대한 묘사이다.

관가령(管家嶺)을 지나 석비교(石碑橋)에 이르니, 나귀를 타고 지나는 계집이 있는데 가장 젊고 약간 고운 얼굴이라. 위에 자주색 긴 옷을 입었으며, 밑에 붉은 치마를 입었으나 옆이 터졌으니 전삼후사(前三後四)를 한 것 같으며, 주름을 아주 잘게 하여 끝까지 접었으며, 발이 매우 작으니 대여섯 살 아이 발 같고, 신을 신었으되 앞과 뒤가 무척 뽀족하고 가운데가 오목하니, 이 같은 신을 신고 걸어가는 계집을 혹 만나면 걸음이 아주 위태한지라. 이리므로 막대를 다 짚었으며, 발등은 소복하고, 신바닥이 들리어 두 끝만 땅에 닿았으며, 혹 예닐곱 살 먹은 계집아이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이 두 팔 밑에 각각 막대를 짚었으니, 이는 발을 갓 동였기 때문에 견지 못하여 다닐 때에 막대를 의지하였더라.³⁴⁾

위의 기록에서는 “대여섯 살 아이 같은 발, 앞과 뒤가 무척 뽀족하고, 가운데가 오목한 것”, 그리고 전족을 한 여성의 걸음이 아주 위태하여 막대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이나, 예닐곱 살 되는 여자아이도 발을 동여 견지 못하여 팔 밑에 막대를 짚고 의지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전족 차림에 대해 불안함이나 걱정하는 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조선은 전족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연행록 작자들은 전족을 아주 특이하게 여겼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족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중국의 유일한 전통이다. 전족 전통은 남당 말 이후주(李後主)가 총애했던 궁빈 요낭(宵娘)의 삼 치 작은 발 [三寸足]이 연꽃에 올라 춤을 추었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여성의 작은

33) 민족문화추진회(1976), 앞의 책, 33쪽.

34) <무오연행록>제2권, 12월 18일.

발에 대한 숭상이 본격화된 것은 남송 시기부터인데 원말명초에 이르러서는 전반적인 사회 풍조가 되었다. 이는 송나라 시기부터 성리학이 강조된 사회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여성이 전족을 하는 것이 성리학적 이념을 실행하는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전족을 한다는 것은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여성에 대한 부도와 부덕의 강조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성리학의 “삼종지도(三從之道)”에 따라 남편에 순종하고, 『예기(禮記)·내칙(內則)』의 “男治外事, 女治內事”를 지키는 방법이 여성을 가정 안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명나라 시기에 와서 전족은 상층 여성의 수식과 표지가 되었다. 전족을 하면 노동을 하기 어려운 데다가 대개 노동을 하지 않는 계급의 여성이 전족을 했기 때문에, 고귀한 여성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생겼다. 반대로 전족을 하지 않는 하층 사회의 여성들은 가사를 하고 노동을 해야 남편과 함께 가정의 생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래서 전족을 하지 않은 여성의 큰 발은 비천한 신분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천한 지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딸을 상층 사회로 시집을 보내기 위해 어려서부터 전족을 하기도 했다.³⁵⁾

그러나 만주족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남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활을 배웠다. 그래서 전족을 하지 않았다. 청나라의 황제 누르하치나 그의 아들 황태조도 한족 여성들의 전족에 대해 넓은 관습으로 여기며 못마땅한 태도를 보였다.

황태조는 1638년에 한족을 포함한 모든 관료의 아내에게 전족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1644년 입관한 후에는 전국적으로 변발령과 전족금지를 명하였다. 청나라 조정은 한족들의 저항을 강제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강희황제 때에도 전족 금지에 대

35) 王東芳, 『邁向近代: 剪辮與放足』, 遼海出版社, 1997, 17~18쪽.

한 엄한 법령을 반포하였다. 하지만 한족 사대부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전족금지 법령은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족 사대부들은 자신의 모친이나 아내가 전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다. 당사자인 여성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꼈다. 전족은 고귀한 행위이고 높은 신분의 표시였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은 전족을 용인하고 묵인했는데, 남성들의 단발령과는 달리 한족 여성들의 전족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만주족 지배자들의 통치에 별로 큰 영향이 없었던 까닭이다. 오히려 청나라 조정은 전족을 허용함으로써 한족 사대부들을 회유하고 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었다.³⁶⁾

결국 1668년(강희 7년)에 전족 금지령이 폐지되었다. 한족 남성들은 만주족의 통치하에 자신은 부득이 머리를 깎고 복식도 바꿨지만 여성들이 전족을 하는 것은 민족의 절의를 지키는 숭고한 일로 승화시키며 한족 인구의 절반이 만주족에게 정복되지 않았다는 심리적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³⁷⁾

남편에게 노동과 가사를 맡기는 만주족 여성이나 전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한족 여성이나 모두 근면한 생활인의 모습은 아니다. 그럼에도 전자는 다소 부정적으로 그리고, 후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서술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조선 사대부의 규범의식이 대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규범을 지키는 한녀와 내외규범에서 자유로운 호녀

조선 사신들은 대체적으로 한녀들이 남녀유별을 지키고 바깥출입을 하지 않아 거의 얼굴을 보기 드물었다고 적고 있다. 김창업은 “한족 여인은 사람을 피하고 청족 여인은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³⁸⁾라고 하며 한녀와 호

36) 王東芳(1997), 앞의 책, 22~27쪽.

37) 夏曉虹, 『晚清女性與近代中國』, 北京大學出版社, 2014, 161쪽.

38) 金昌業, 〈燕行日記〉〈卷之一〉〈山川風俗總錄〉, “漢女避人. 清女不避人.”

녀를 대조했다. 한족 여인이 얼굴을 잘 안 보여주는 것은 유교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이고 만주족 여인들이 사람을 피하지 않는 것은 내외규범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조천일승(朝天日乘)〉에서 윤 10월5일 조에서 조즙(趙澱)은 안릉(安陵)에서 언덕을 내려와 술 사오기를 기다리다가 본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언덕 위에 붉은 칠한 문이 한 짝은 닫기고 한 짝은 열렸더라. 단청(丹青)한 다락의 두 바라지에 주렴(珠簾)을 드리우고 한 계집이 나이 열 대여섯은 된 총각과 아침 단장(丹裝)을 새로 하고 다락을 올라 주렴발을 걷더니 얼굴이 가장 단정하고 곱고 보조개는 달 같고 눈은 셋별 같으니 바라보기에 신선이냐 싶으더라. 주렴을 걷어 고리에 걸려 할 제 우리 일행의 배 넷이 한곳에 모여 사람을 많으니 그를 싫어하여 낮을 아니 뵈려고 몸은 숨기고 한 손으로 내밀어 걷으니 손길이 백옥같고 엄파 같더라. 한 손으로 걷어 었으니 내려지고 었으니 내려지니, 하다가 못하여 낮을 내어 겨우 고리에 거니 그 부끄러워하며 수줍어하는 형상이 더욱 기특하더라. 발 걸은 뒤에 주홍(朱紅) 의자를 놓고 잠깐 한결을 숨기고 비켜 앉아 무슨 일을 하는 듯하되 돌아앉았으며 자세히 알 수 없을러라.

여기에서 저자가 본 여성은 “얼굴이 단정하고”, “보조개가 달 같고”, “손길이 백옥 같고”, “눈도 셋별 같아 신선”인 것처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 이 여성이 주렴을 걸러다가 조선 사신들 일행을 보고 부끄러워 피하려고 하나, 주렴을 걸기 위해 마지못해 얼굴을 보이는 모습에 저자는 더욱 기특하다고 칭찬했다. 이 여성은 단정하고 내외를 하고 규범을 지키는 전통적인 중국 고대 여성의 이미지이다.

〈조천일승(朝天日乘)〉은 해상노정을 거쳐 연경에 왔는데 구체적인 노정은 개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의 요녕성과 산둥성, 하북성 연해 지구를 거쳐 천진을 통해 연경에 이르는 길이다.³⁹⁾ 인용한 글에서 안릉(安陵)은

현재 중국 허북성(河北省)에 속하는 지역이다. 지역적으로 만주족은 대부분 길림성과 요녕성 내륙에 집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다면, 작품에서 묘사한 여성은 한족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연행록 저자들의 호의적 시선은 호녀들의 탈규범적 모습을 대할 때와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서 조선사신이 이들을 호녀와 다른 문화 전통의 여성들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사신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중국 여성들이 남녀유별과 내외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지 않는 모습이였다. 조선 사신들은 어려서부터 “남녀유별(男女有別)”,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등을 교육받았으며 그것이 중요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연행 과정에서 만난 중국 여성들은 그러한 예의에 구속되지 않았는데, 이에 그들은 당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행일기>(1712)에 묘사된 호녀이다. 호녀는 남자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

호인 하나와 그의 아내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용만 비장이 이야기해서 드디어 그 반쪽을 비워서 함께 앉았다. 호인은 온돌방 밑으로 내려가 의자에 앉았으나 그 아내는 그대로 온돌방 위에 앉아 있고 꿈쩍을 하지 않아 나와 좌석이 서로 닿으려고 하므로 괴로웠다. (중략) (주인집) 여자는 30세쯤 되었는데 얼굴 화장

39) <朝天日乘>의 구체적인 연행 노정은 다음과 같다. 1623년(인조1년)7월 25,26일 출발, 27일 입궐하여 숙배하고 경영고(京營庫)에서 묵고, 28일 서울을 벗어나 파주에서 묵었다. 그 이후로는 개성-평산-봉산-중화-평양-숙천-가산-정주-곽산-선사개(宣沙浦)→피섬(皮島=靉島)녹도(鹿島)→석성도(石城島)→장산도(長山島)→묘도(廟島)→등주(登州)-황산관(黃山館)-주교역(朱橋驛站)-내주(萊州)-유현(漣縣)-창락(昌樂)-장산(長山)-제남주(濟南府)-평원(平原)-덕주(德州)→천진(天津)-무청(武青)-연경(燕京)에 이르러 출발일 112일만에 연경에 도착했다. 돌아오던 길은 같은 길로 등주까지 이르러, 등주로 배로 광록도(廣鹿島)까지 30일만에 달았다. 그리고 연경에 머문 시일은 1623년 10월 21일~1623년 3월 1일 128일간이다. (최강현(1979), 앞의 논문, 319~320쪽 참조.)

이 심했다. 걸으로는 금지를 가진 듯한데 자주자주 걸눈질을 하여 사람을 보는 그 태도가 미웠다. 남편이 끝까지 지켜 있어 잠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지키고 있음이 현연했다. 40)

위의 기록에서 저자는 호인의 아내가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서 괴로웠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있으면서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그리고 “얼굴 화장이 심하고”, 다른 남자에게 자주 걸눈질하는 태도가 ‘정숙하지 못하게 보였다. 저자는 그 모습이 밋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남편이 끝까지 지켜 있어 잠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지키고 있음이 현연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은 아내가 남자와 어울려 있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고 속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직접 자리를 피하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옆에서 그냥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이는 아내가 전혀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의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호녀는 남자와 농담을 할 정도로 부끄럼이 없었다. 다음은 <연행일기>(1712)의 기록이다.

길을 걷고 있는 호녀 8~9인을 만났다. 원건이 “어디로 갑니까”하고 물으니 그 중 한 여인이 답하기를 “고려인을 보기 위해 갑니다” 한다. 이것은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이다. 원건이 “매우 불안한데” 하니 그녀들이 모두 웃었다. 41)

이처럼 연행록에 기록된 호녀는 남녀유별을 하지 않고 내외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 김창업은 “몽골인 계집들도 또한 온자가 있다고 하지만 마침 보이지는 않는다. 듣건대 그 의복제도는 호녀와 같으며 머리는 우리나라 여인들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멋대로 다니며 사람을 보고 피하지

40) 김창업, <연행일기> 제3권, 12월 27일.

41) 김창업, <연행일기> 제2권, 12월 5일.

도 많으니 금수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⁴²⁾ 라고 하며 호녀와 복식이 비슷한 몽골 여인에 대해서도 “금수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호녀나 몽골 여인들에게 이러한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낯선 사람들, 특히 남성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불쾌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의 연행록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서유문의 <무오연행록>(1798)의 기록이다.

관(關) 내외의 여자가 수레(車)를 타고 지나는 자가 많으니, 혹 앞을 헤치고 아리따이 고운 얼굴을 내어 우리나라 사람을 구경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움츠러 앉으니 이는 내외(內外)하는 뜻이 있으나, 수레를 모는 놈이 수레 앞에 반듯이 앉아 더럽고 흉악한 몰골로 수레 안에 앉은 계집과 낫과 등이 서로 닿을 듯하니 분명 제 지아비는 아니라, 이 무슨 내외(內外)라 하리요. 우스꽝스럽고, 혹 우리나라 사람을 눈이 뚫어지도록 보아 부러워하는 기색이 뚜렷한데도, 수레를 따라 가는 자가 돌아보아 무엇이라 중얼거리면 갑자기 문을 내리고 피하니 또한 매우 우습더라.⁴³⁾

위의 기록에서 수레를 탄 여성들이 수레를 모는 남자와 낫과 등이 닿을 듯한 모습을 보고, 저자는 “남녀유별”이 없으면서도 짐짓 내외를 하는 척한다면 그 모습이 우습다고 비웃고 있다.

많은 연행록 저자들이 호녀들에게 남녀유별과 내외하는 도리가 없는 것을 기록했다. 호녀들의 이러한 태도는 만주족 풍습 및 청나라의 “選秀女” 정책과도 관련된다. 만주족도 전반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을 갖고 있지만 자식을 귀하게 여겨 남녀를 불문하고 자손이 번영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딸을 낳아도 아들과 똑같이 성대한 출생 의식을 행하고, 결혼을 할 때 풍족한 혼수를 주었다. 또 청나라는 초기 백여 년간 팔기(八旗)

42) 김창엽, <연행일기>, 계사년, 1월 1일.

43) <무오연행록> 제2권, 무오년, 12월 18일.

여성을 대상으로 3년마다 궁중 비빈을 선발했기 때문에, 딸로 인해 가문의 부흥이 가능했다. 그래서 만주족 여성들은 출가 전에 집안에서 특별한 총애를 받고 가사를 많이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기인(旗人) 가정에서는 출가 전의 딸이 집안을 관리하였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만주족 여성들은 가족에게 사랑과 존대를 받으며 한족 여성들에 비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었다.⁴⁴⁾

만주족 여성의 독립성은 연상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 풍습의 영향도 받은 듯하다.⁴⁵⁾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많은 일에서 아내의 의견을 듣게 되고, 집안에서도 아내가 주도적이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만주족 여성은 남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범하게 행동하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유교 관념을 가진 조선의 사신들은 이러한 모습을 내외가 없고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무례함으로 보았다. 그것은 다시 중화주의적 사고와 결부되어 만주족 전체에 대한 폄하로 이어졌던 것이다.

3. 여성 규범과 소중화 의식의 강조와 변화

한글본 연행록은 17세기로부터 19세기까지 꾸준히 제작되었다. 조선후기 근 200여 년간 한글본 연행록을 통해 중국의 모습이 조선에 전해진 것이다. 조선 여성들을 한글본 연행록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안목을 넓혔으며 여성으로서 중국 여성에 대한 관심도 많았을 것이다. 연행록 저자들은 한글본 연행록을 통해 중국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중국 여성에 대한 기록에서는 예상 독자인 조선 여성들을 염두에 두고 여

44) 李晶, 『文化與自我—清代滿族女性家庭地位特點的人類學闡釋』, 『大連民族學院學報』第6卷第6期, 2004, 16~17쪽.

45) 張雪, 『從滿族婚姻變遷看滿族女性社會地位的變化』, 『唐山文學』第2期, 2019, 112~113쪽.

성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주안점으로 두었다. 위의 논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기록에서는 주로 그들의 복장과 머리양식, 장식, 전족여부, 신발 등을 포함해서 가사일, 내외와 행동규범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연행록 저자들이 중국 여성의 이러한 모습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한족과 호족 여성을 비교하며 그 특징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은 화이적 세계관과 여성 규범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사신이 목도한 중국의 복색은 청나라가 건국 초기에 변발과 호복을 강압적으로 착용토록 했던 조치와도 관련된다. 1644년 도르곤(多爾袞)이 북경에 진입하자마자 남성을 대상으로 변발을 강요하고 만주족 복식을 따르라는 “凡投誠官吏軍民，皆剃髮，衣冠悉遵本朝制度”의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순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만주족 통치자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도록 한 법적 요구는 만주족이 ‘한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청나라 통치에 대한 순응과 귀순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족과 명나라 유민 남성들은 오히려 머리를 깎지 않고 명나라 시기의 전통적 민족 복식을 지키는 것이 민족 대의를 지키고 유교적 예교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⁴⁶⁾

그것은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한 중화주의와 숭명배청을 태도를 지닌 조선 사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전통적 유교 이념이 구체적인 의식을 통해 체현된다고 믿었고 이러한 의식에서 복식과 머리카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머리카락은 ‘효의’와도 직접 연관된다. 『효경(孝經)』 『개종명의(開宗明議)』에서는 “身體發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오랑캐의 상징처럼 여겨졌다.⁴⁷⁾ 이는 청나라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46) 徐東日(2017), 앞의 책, 74~75쪽.

47) 李根碩, 『朝鮮的中國想象與體驗(從17世紀到19世紀)-以燕行錄爲中心』 北京大

때문에 조선 사신들은 청나라 문화 중 머리와 복색에 관심이 컸던 것이다.

청나라는 18세기부터 남성들 대부분이 머리를 깎고 복식도 호복을 입었다. 물론 청나라 초기에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만주족 방식의 복색을 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그 시행이 쉽지 않았고 정부적 차원에서도 남성에게만큼 강요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청나라 여성들은 복식과 머리 장식에 있어서 명나라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의 첫째는 청나라가 시행한 “男降女不降” 원칙, 둘째는 종속적 지위에 속하는 여성이 명나라 복장을 해도 중요한 역사기록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셋째는 여성의 복색은 당시 청나라 정권에 반항하는 집단적 상징이 될 수 없다는 것, 넷째는 한족의 복장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우아하고 고귀함의 상징이라는 심미적 경향과 관련이 있다.⁴⁸⁾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행록 저자들은 여성들의 모양과 단장을 명에 대한 시각으로 해석하며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 그들은 중국 여성의 복장과 머리 모양과 장식 등에 대한 기록을 통해 대명 의리를 생각하고 청나라를 멸시하며, 조선이 명나라의 전통과 관습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소중화’ 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 저자들은 한족 여성과 호족 여성을 ‘규범’이라는 기준으로도 비교하는데, 호녀의 탈규범적 태도에 대한 불쾌감은 화이관과 더불어 여성 규범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들은 여성의 자유로움에 대한 인정이 조선 여성들에게 그릇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족 여성이 내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의 강조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 규범의 강조는 한문본에도 주목한 부분이다. 홍대용의〈燕記〉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온다.

남녀의 관계는 지극히 엄격하여, 모든 사대부의 집에서는 집이나 방을 안팎

學博士論文, 2012, 46쪽.

48) 葛兆光, 『想象異域－讀李朝鮮漢文燕行文獻札記』, 中華書局, 2014, 160쪽.

으로 나누고, 비록 하녀들까지라도 일 없이는 문밖에 나가지 않아, 들점심밥이나 시장 보는 일, 밥하고 물 길는 일에 바느질하고 베 짜는 일까지도 모두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 걸어 다니는 부녀자를 볼 수 없고, 극장에 구경 가는 일도 또한 하지 않는다. 귀한 집 부인의 수레나 가마에는 장막을 드리우고,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가 발을 치고 얼굴을 내놓고 다닌다. 다만 젊은 여자는 뒤에 앉고 늙은 여자나 혹은 하녀들이 앞에 타며, 수레 모는 사람이 또 그 앞에 탄다. 지나다니는 남자들이 있어도 모두가 감히 둘러보지를 못한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 수레 속의 성장을 한 젊은 부인들이 반드시 놀라고 이상히 여겨 바라보았다.⁴⁹⁾

위에서 한족 여성들은 남녀 관계가 지극히 엄격하여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길에서 걸어 다니는 여성이나 극장에 가서 구경하는 여성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대부 집안의 여성은 수레나 가마에 장막을 드리고 얼굴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 사신들을 만났을 때는 호기심이 생겨 놀라고 이상한 기색으로 바라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경에 가는 길에서는 내외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었지만 북경에서는 지나다니는 여성들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내외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였다. 홍대용은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 내외가 더 심하였다고 했다.⁵⁰⁾ 이러한 서술은 한글본의 내용과 상통한다.

호녀의 규범 이탈적 모습에 대한 불쾌감은 한글본과 한문본에 공히 드러난다. 홍대용은 한문본에서도 북경으로 가는 길에 만난 부녀들이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사행단을 보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창피해하지도 않는다

49) “男女之際極嚴. 凡士大夫家. 宮室辨內外. 雖婢屬. 無事不出門. 若野饑市貿炊汲縫織之事. 都不與焉. 是以道上無徒行婦女. 如場戲遊觀之事. 亦不預也. 貴家婦人. 車輻垂帳. 其餘皆掀簾露面. 惟少者在後. 老者或婢子在前. 看車者又在其前. 男子行者. 並不敢顧眄. 但遇我人. 其少婦盛飾者. 必驚怪闚望.”(洪大容, 『湛軒書』 『外集八卷』 『燕記』 『京城記略』)(金敏鎬(2012), 앞의 논문, 313쪽 재인용.)

50) 金敏鎬(2012), 앞의 논문, 313~315쪽.

고 적고 있다.

변문의 가게들은 대개가 가난하고 허술하였다. 부녀자들은 무명옷에 시골티 나는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머리에도 꽃비녀를 꽂지 않고 있었다. 다만 새벽에 일어나 머리 빗고 세수하고 나서 분 바르는 일만큼은 언제나 쉬는 법이 없었다. 더러 남방의蠻人 풍속처럼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부녀자도 있었으며, 여럿이 모여 앉아 불에 손을 쪼이면서 화로 곁을 떠날 줄 몰랐는데, 우리들을 보고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오직 그녀들의 얼굴빛이 더럽고 못났을 뿐 아니라, 입은 옷과 머리모양이 처음 보기에 누구나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인데, 며칠을 두고 보아 익숙해진 뒤에는 항상 보는 것 같았다.⁵¹⁾

여기서 그녀들의 “무명옷에 시골티 나는 차림”이나 “얼굴빛이 더럽고 못났다”든지, “입은 옷과 머리 모양이 처음 보기에 누구나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묘사에서 부녀들이 “못생긴” 만주족 여성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들을 보고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만주족 여성들이 남자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여럿이 모여 앉아 불에 손을 쪼이며, 전혀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남녀유별이 없고 내외가 없다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태도는 후기로 가면서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김직연은 <연행록>(1858)에서 호녀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했지만 예전만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구체적인 묘사는 다음과 같다.

다투어 손을 내밀며 청심원(淸心元)을 달라고 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을 뿐더러 손을 내저어도 가지 않았다. 만일 달라는 것에 한번 응하면 끝없는 요구

51) “邊門店房。槩多貧弊。婦女亦布衣村粧。髻不簪花。惟曉起梳洗。脂粉不暫廢。或有耳環如蠻俗者。羣聚烤手不離爐。見我人不羞不怕。不惟其貌色粗醜。創見其衣髻。無不駭異。數日習熟之後。視若故常也。”(洪大容, 『湛軒書』 『外集八卷』 『燕記』 『沿路記略』)(金敏鎬(2012), 앞의 논문, 312쪽, 재인용.)

가 이어지고 무람없음이 더욱 심해질 것 같아 짐짓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하면서 우두커니 흠뻑이처럼 앉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데, 혹은 현기증이 있다 하고, 혹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키며 삼켜 먹는 모습을 지어 보였다. (중략)..... 청심환 몇 개를 주어 보내고, 장난삼아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지었다. ‘수놓은 소매에 은 귀고리, 머리에 꽃을 가득 꽂았는데, 침상 앞에서 즐지어 서 있길래, 무엇을 구하는가 물었네. 웃으며 낭랑한 목소리 하는 말, 청심환을 구한다 하니, 호녀는 원래 부끄러움 모르는 이가 많다네.’⁵²⁾

위의 기록에서 중국 여성들은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조선의 청심환을 구하기 위해 앞을 다투며 달려든다고 했다. 중국어를 모르는 저자가 손을 저으며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것이다. 그녀들은 또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큰소리로 떠들며 몸짓까지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예의를 지키지 않고 남녀유별과 내외가 없는 여성의 대부분이 호녀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족 여성은 내외를 하고, 만주족 여성들은 내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김직연은 호녀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당황하면서도 너그럽게 봐 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 전 시기에 비해 연행록 저자들의 호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유연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직연은 <연행록>(1858)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 중국을 유람한 자는 그 규모의 장대함과 위외의 성대함과 궁실의 장려함과 인물의 변화함을 보고서 큰 바다를 보고서 탄식하듯 마음과 눈이 현란하여 입으로 전하지 못하고 글로 형용해 내지 못한다. 이에 공경하며 부러워하여 지나치게 칭찬하기를 마지않으며, 혹은 오랑캐라는 이유로 멸시하여 비웃기만 일삼는 자 또한 열에 한 둘이 된다.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52) 김창엽, <연행일기>, 1월 18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판별하려 한다면 공변된 견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부인의 복식에 있어서는 긴치마에 소매가 넓어 오히려 중화의 옛법도를 간직하고 있으니, 오랑캐의 복식으로 볼 것이 아니다.”⁵³⁾

김직연은 청나라의 장대함과 변화함 등에 대해 감탄을 하며 “마음과 눈이 현란하여 입으로 전하지 못하고 글로 형용해 내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오랑캐라 하여 청나라를 멸시하거나 비웃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복식을 예로 들어 부인의 복식이 중화의 옛법 즉 명나라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오랑캐 복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옹호했다. 청나라를 긍정하는 근거로 명나라의 전통 계승을 강조한 것은 대명의를 중시하는 관념과 부강한 청나라를 목도한 현실 사이에 처한 조선 사대부의 위치와 모순된 심리를 드러낸다.

호녀의 탈규범적 모습을 ‘자유’와 ‘여유’로 바라보는 시선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이노춘(李魯春)의 <북연기행>(1783년) 2월 1일 일기를 보면, 제기차는 계집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는 여자아이가 제기를 차는데 발이 경쾌하게 오르내리며 백에 하나도 그릇 차는 적이 없다고 했다. 또 황성의 여자들은 매년 정월 십칠 일이면 정양문 밖 천단 앞에서 마상재를 하고 제기를 차며 서로 재주를 다툰다고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노춘은 “그 풍속이 이런 고로 마을 계집이 능히 이런 놀음을 하고 또 계집들이 방적 침선과 물 길고 절구질 하며 음식 팽임하는 일이 없어 종일 한가히 노는 고로 이런 놀음을 하니 이는 사나이가 혼하고 계집이 귀하기에 그러한가 싶어더라.”(2월 1일)고 평하였다.⁵⁴⁾

그는 제기차기 풍속을 통해 여자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것은 청나라 여성의 모습에 대해 보다

53) 민족문화추진회(1976), 앞의 책, 273쪽.

54) 장경남(2010), 앞의 논문, 116쪽 재인용.

느긋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여성에 대한 시선은 청나라 전반에 대한 태도로 연결된다. 이노춘은 중국의 변화한 문물과 부유한 삶을 보며 청나라의 부강함에 부러운 시선을 보냈다. 그는 시정의 변화한 물색에 눈이 “현란하다”고 하며 “왕래하는 사람이 다 준매한 미남자요. 문을 의지하여 보는 계집이 또한 자색이 많이 있더라.”고 하였다.⁵⁵⁾

18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연행록 저자들은 한족 여성들이 명나라 복식을 입고 전통을 지키며 규범을 준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8세기 중후반 이후 이압, 홍대용, 박지원, 유득공 등의 기록에서는 계문란(季文蘭) 처럼 “돈이 없어서 호인들과 통혼할 수밖에 없는 한녀”와 비단치마를 입고, 얼굴도 이쁘고 음악도 잘하는 아릿다운 기녀들이 모두 한녀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강희제 때에 만주족 여성이 기생이 되는 것을 사형의 법률로 금지하였기에 기녀는 대부분 한족 여성이 담당하게 되었다.⁵⁶⁾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연행록 저자들의 호녀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던 것이다.

또한 1624년 조즙의 <조천일승(朝天日乘)>에서는 한족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김창엽의 작품에서부터는 한족, 만주족, 몽골족 여성까지 포함하여 대상이 폭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조선 사신들이 한족과 만주족, 몽골족 여성간의 비교를 통해 화이적 세계관과 ‘대명의리’를 나타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조천록(朝天錄)은 천자의 나라에 조회(朝會)를 간 기록”으로 “정례적으로 가는 외교 행위를 수행하는 공무(公務)적 목적”을 드러내며, 연행록은 “청의 수도인 연경(燕京)에 간 기록”으로 길을 가면서 본 광경과 일들을 좀 더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창엽의 작품 후로는 “공무적인 기록보다는 연행록자들의 개인으로서의 체험인 여행”으로 볼 수 있으며 여행 경험으로 생각하는 저자들의 의도가 더 강해졌기에 ⁵⁷⁾ 관찰 대상도 더 폭넓게 또 더 자세히 기록되고

55) 장경남(2010), 앞의 논문, 115쪽 재인용.

56) 김현미(2005), 앞의 논문, 193~195쪽.

있으며 저자들의 인식의 변화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이상으로 한글본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여성의 모습을 살폈다. 한글본 연행록에 기록된 중국 여성에 대한 평가에는 조선 사대부 남성이 조선 여성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 여성의 형상과 그에 대한 평가는 연행록 저자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조선 사신들이 중국 여성을 보기 전, 문헌을 통해 지녔던 이미지는 순종적이고 절개를 지키며 남녀유별이 있는 전통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실제로 본 중국 여성 중에는 전통적인 여성도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고 단장에만 신경을 쓰며 남편한테 일을 시키는 여성, 남녀유별에 구애받지 않는 여성도 있었다.

연행록 저자들은 중국 여인의 모습 중 규범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랑캐의 풍습이라거나 밋다거나 불쾌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중국 여성을 ‘한녀(漢女)’와 ‘호녀(胡女)’로 구분하고 전자는 긍정적인 존재로 후자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이것은 여성에 대한 규범을 중화주의와 결합한 결과일 것이다. 명나라에 대해서는 대명여리론을, 청나라에 대해서는 북벌론을, 조선 스스로에 대해서는 소중화 의식을 강화하고 있지만⁵⁸⁾ 이러한 의식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연한 현실에 의해 각각의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⁵⁹⁾ 이러한 인식은 조선 후기로 오면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후기 기록에서

57) 김현미(2019), 앞의 책, 1~239쪽 참조.

58) 유봉학, 「18~19세기 대명여리론과 대청의식의 추이」, 『한신논문집』 5, 1988, 249쪽.

59) 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231쪽.

는 만주족 여인의 모습을 ‘무례함’보다는 자유롭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여성을 통해 조선 사신의 여성규범과 화이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글본 연행록은 예상독자인 조선 여성에게 전통적 규범을 강조하고 자유로움을 경계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을병연행록>은 한문본인 <담헌연기(湛軒燕記)>보다 여성의 부덕에 대해서는 시종 일관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⁶⁰⁾ 그리고 박지원이나 홍대용의 연행록에서 ‘개가’나 정절 등에 관한 내용도 조선 여성과 비교하며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자들은 한글본 연행록에서 중국 여성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대로 조선 여성들에게도 중요한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조선 여성은 중국 여성에 대한 평가를 보며, 스스로 지켜야 할 규범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행록에서 부정적으로 본 중국 여성의 모습 즉 단장만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남편에게 일을 시키거나, 부부유별과 내외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을 조선 여성도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한문본에 비해 한글본 연행록이 여성 독자를 더욱 고려했다는 것은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에서 확인된다. 머리 장식에 관한 내용이 한문본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여성들이 그대로 모방할 수 있을 정도로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을병연행록>은 한문본 <담헌연기(湛軒燕記)>보다 긴 대화가 많고, 내용에 있어서도 아이에 대한 관심, 시장풍경, 음식 등을 자세하고 흥미롭게 적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학술적인 내용, 예를 들어 <간정동필담>에는 항주 선비들과 양명학 및 시경 <소서>에 대해 필담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 이런 내용들이 <을병연행록>에는 모두 생략되었다.⁶¹⁾

60) 채송화(2014), 앞의 논문, 438~442쪽.

61) 채송화(2014), 위의 논문, 448쪽.

그밖에 한글본 연행록은 한문본에 비해 여성 독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내용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담헌 일기(澹軒日記)>에서는 문천상(文天祥)의 정녀묘 글귀 중 22자만이 제시되어 있지만, 한글본 <을병연행록>에서는 홍대용의 의견이 담긴 섬세한 해석이 각 구절마다 길게 서술되어 있다. 김직연의 <연행록>에서도 한문본에서 언급되지 않은 관직명, 공무, 의례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비슷한 내용이라도 한문본에 비해 한글본이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서술되어 있다.⁶²⁾

한글본이 남성의 체면을 손상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여성 독자를 의식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김직연의 한문본 <연시일록(燕槎日錄)>에는 한 부사가 기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시를 지은 내용이 있지만 한글본 <연행록>에서 이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⁶³⁾ 비록 저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여성들에게 읽히기는 좋지 않다고 하여 삭제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한글본과 한문본 연행록의 비교는 차후 과제로 남긴다.

62) 조양원(2012), 앞의 논문, 258쪽.

63) 조양원(2012), 위의 논문, 268~269쪽.

참고문헌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98) 연행록선집 IV』,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6.
한국고전문학번역 DB: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3&cate1=Z&cate2=&dataGubun=서지&dataId=ITKC_BT_1423A&upSeoji=ITKC_BT_1409A

고운기, 『한글본 연행록의 제작 양상-새 발굴 자료 상봉록과 승사록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0, 2004, 5~28쪽.

김동욱, 『무오연행록해제』, 『민족문화』 2, 한국고전번역원, 1976, 156~160쪽.

김상조,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연구』, 『영주어문』 10, 2005, 29~50쪽.

김정경, 『18세기 한글본 연행록 연구-정녀묘와 천주당 건문기록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9, 2016, 11~42쪽.

김철, 『燕行錄 중의 孟姜女 전설 기록 양상 小考』, 『민족문화연구』 63, 2014, 157~209쪽.

김태준, 『"열하일기" 한글본 출현의 뜻』, 『민족문화사연구』 19, 2001, 282~329쪽.

김태준, 『담헌연기와 을병연행록의 비교연구-특히 한시 번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11, 1985, 38~68쪽.

김현미(위은이), 『낭송 18세기 연행록』, 북드라마, 2019, 1~239쪽.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에 나타난 중국의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2005, 181~205쪽.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혜안, 2007, 1~307쪽.

崔康賢著, 『韓國古典隨筆講讀』, 高麗苑, 1987(제4판), 1~433쪽.

金敏鎬, 『燕行錄에 보이는 中國 女性 形象』, 『中國語文論叢』 54, 2012, 299~330쪽.

申先玉, 『연행록 속에 나타난 중국 여성이 사회적 역할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44, 2015, 185~196쪽.

楊蕾蕾, 『"老稼齋燕行日記"가 그린 청나라: 청나라의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冠嶽語文研究』 35, 2010, 179~200쪽.

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292쪽.

박지선, 『"老稼齋燕行日記"의 서지적 고찰』, 『어문연구』 23-4, 1995, 197~215쪽.

- 신익철, 『연사일록의 서술 방식과 청국의 혼란상 및 풍속에 대한 인식』, 『한국 문학연구』 43, 2012, 161~195쪽.
- 신효련, 『노가재 <연행일기>의 국문본 이본 고찰』, 『열상고전연구』 49, 2016, 43~65쪽.
- 유봉학, 『18~19세기 대명의리론과 대청의식의 추이』, 『한신논문집』 5, 1988, 249~274쪽.
- 유춘동, 『한글연행록의 수집 현황과 활용방안』, 『열상고전연구』 50, 2016, 361~377쪽.
- 이지영, 『『燕槎日錄』 한글본에 대한 고찰』, 『국어사연구』 15, 2012, 269~294쪽.
- 임명걸, 『『을병연행록』 연구-『연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22, 2020, 411~423쪽.
- 장경남, 『국문본 연행록 『복연기행』 연구』, 『우리문학연구』 29, 2010, 99~132쪽.
- 장경남, 『서유문의 『무오연행록』 연구』, 『국어국문학』 130, 2002, 157~185쪽.
- 전혜숙, 『서유문의 무오연행록에 나타난 복식문화』, 『한복문화』 9(2), 2006, 23~39쪽.
- 조규익, 『조선 후기 국문 사행록 연구-무오연행록의 내용과 의미』, 『崇實語文』 18, 2002, 269~299쪽.
- 조규익, 『조선조 국문 사행록의 통시적 연구』, 『어문연구』 31, 2003, 83~104쪽.
- 조미희, 『동경대 소장 한글본 <열하기>의 번역 양상』, 『열상고전연구』 49, 2016, 95~130쪽.
- 조양원, 『김직연의 연행기록 『燕槎日錄』·『연행록』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35(1), 2012, 243~277쪽.
- 조양원, 『동경대 소장 한글본 『熱河記』 연구』, 『민족문화』 44, 2014, 79~120쪽.
- 조혜란, 『조선시대 한글과 여성 교양』, 『달밤의 약속』, 『완월회맹연 읽기』, 책과 함께, 2019, 13~28쪽.
- 채송화, 『『을병연행록』과 여성 독자』, 『민족문화사연구』 55, 2014, 427~461쪽.
- 최강현, 『미발표 사행기록 『조천일승(朝天日乘)』 소고』, 『새국어교육』 29-1, 1979, 308~325쪽.
- 한영균, 『순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소장 자료의 국어사적 가치』, 『열상고전연구』 41, 2014, 191~215쪽.
- 한영균, 『한글 연행록류의 서지와 산출 시기』, 『열상고전연구』 49, 2016, 7~94쪽.
- 홍대용, 소재영 외 주해,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1~842쪽.

- 徐東日, 『朝鮮朝使臣眼中的中國形象-以『燕行錄』『朝天錄』爲中心』, 中華書局, 2017, 1~306쪽.
- 李根碩, 『朝鮮的中國想象與體驗(從17世紀到19世紀)-以燕行錄爲中心』, 北京大學博士論文, 2012, 1~129쪽.
- 葛兆光, 『想象異域-讀李朝朝鮮漢文燕行文獻札記』, 中華書局, 2014, 1~302쪽.
- 王東芳, 『邁向近代: 剪辮與放足』, 遼海出版社, 1997, 1~226쪽.
- 夏曉虹, 『晚清女性與近代中國』, 北京大學出版社, 2014, 1~404쪽.
- 李晶, 『文化與自我-清代滿族女性家庭地位特點的人類學闡釋』, 『大連民族學院學報』, 第6卷第6期, 2004, 14~18쪽.
- 張雪, 『從滿族婚姻變遷看滿族女性社會地位的變化』, 『唐山文學』第2期, 2019, 112~113쪽.

ABSTRACT

A study on Chinese female images in Hangul Yeonhaengrok(燕行錄)

Wen Lihua

Yeonhaengrok is a travel journal written by envoys who travelled to China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records the natural scenery, culture, and daily life experienced during the visit. It is a valua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 that shows the history, politics, social culture,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It can be divided into Chinese and Hangul; most relat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hinese version.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Chinese women and in the way Joseon envoys view women in the earliest of the 14 types of the original Hangul that have been unearthed so far, including Jo-cheonilrseng(朝天日乘), Yeonhaengilrki(연행일기), Eul-Byeong-Yeonhaengrok(을병연행록), Muo-yeon-hangrok(무오연행록), Bukyeongihaeng(북연기행), and Yeonhaeng-rok(연행록). Given that the author were familiar with Chinese ideology and the patriarchal system, their view of Chinese women will be an indicator reflecting change among the Joseon literati and in the official consciousnes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he Chinese female images in Yeonsailrok reflect the specific images and existing ideas in the authors' eyes. They had a special interest in Chinese women's clothing and attire, separating Chinese women into two categories, namely the "woman of Han(漢女)" and the "woman of Hu(胡女)" and generally expressing affirmation toward them. This shows that the authors took pride in inheriting the tradition of the Ming dynasty and expressed a sense of Sojunghwa(小中華).

The main readers of Hangul Yeonhaengrok are Korean women, and they build knowledge on China and form images of Chinese women. Thus, the images of the "woman of Han" and the "woman of Hu" in Hangul can be seen as a device to attract female readers and strengthen women's virtues.

Key Words

Hangul Yeonhaengrok(燕行錄), images of Chinese women, woman of Han, woman of Hu, women's norms

논문투고일 : 2020.10.15

심사완료일 : 2020.10.29

게재확정일 : 2020.11.11